

김별아의 문학과 삶



끔찍한 어떤 성공

“최근에 어떤 끔찍한 성공을 경험하셨습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칼 융(Carl Gustav Jung)은 자신의 방을 찾은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성공’을 지상의 과업이요,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뜬금없는 ‘뻘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바라가지 않는 부와 명예와 명망을 한꺼번에 거머쥐는 성공이 어떻게 끔찍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성공하지 못한 ‘루저’들의 강짜가 아닌가?

하지만 개인의 무의식에서 그림자(shadow)를 발견한 융의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 측면, 그림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빛이 강렬할수록 어둠이 깊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외면적으로 크게 성공할수록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도 더 커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스스로 의면하거나 숨기고 싶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잔인한 상상, 음습한 욕망, 스스로조차 혐오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에 닿기는 쉽지 않다. 그래

서 더욱 이를 악물고 성공을 향해 일로매진 할 수밖에 없다. 남들처럼 놀고, 쉬고, 즐겨서는 절대 안 된다. 자칫 실수를 저지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완벽을 기해야 한다. 뒤돌아보거나 옆을 힐끗거리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그리하여 오랜 강박과 절제와 이기심으로 마침내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성공’한 이의 심경은 그다지 편편할 수 없다. 강박과 절제로 남들이 알 수 없는 혼자만의 어떤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기에, 만족과 충만감을 느끼기보다는 보상 심리와 사로잡히기 심상인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인정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

왜? 나는 그만큼 ‘희생’했기에! 성공한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기보다는 비웃으며 경멸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왜? 그들은 무능력하고 나태한 패자이기에!

‘성공’의 이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념이나 정파 따위도 간단히 뛰어넘는다. 이미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청문회 자리에 나온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놀라 자빠질 만큼의 편법과 불법의 이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러구러 수십 년을 먼지와 티끌의 세상에서 구르며 살다 보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에 한 눈썹 짙은 감고 고개를 주억거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건 먼지 정도가 아니라 숫제 ‘방사는 분진’이다. 주변 사람들을 재채기하게 만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중병을 들게 만드는 유독성이다.

보통 사람은 어쩌다 한 번 편법을 쓰는 일도 어렵고 귀찮은데 어쩌면 그리 일상 다반사로 법망을 빠져나가 불법을 저지르단 말인가? 그때 그들의 그림자는 병렬한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다. 성공을 위해 양심과 자긍심을 던져버린 흔적이다.

때로는 고결한 지위와 맛바꾼 비틀린 욕망이 그림자에 묻어나기도 한다. 근사한 벨로드라마의 멋진 주인공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플래시 세례를 받거나 하면, 권력자들이 현세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황음한 난장을 치는 ‘동물의 왕국’을 담은 동영상도 발견되기도 한다.

무임승차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라고 체근하던 유명 강사가 타인의 연구 성과에 무임승차했음이 드러나고, 인권을 말하던 입으로 성희롱을 한 명사가 얼얼해 성적 취향을 ‘아웃팅’ 당하기도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황당하고도 어리뭇떨한 사태들은 그 대단한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단순하고도 무서운 삶의 이치가 때로는 성공 대신 원칙을, 양심을, 사람을, 가족을, 건강을, 그리고 마침내는 꿈을 잃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성공한 것일까?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짧은 소견머리로 미련하게 주장해 왔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성공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 가치와 욕망에 반(反)하는, 나를 왜곡하고 소진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자 힘이다.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성공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날 수 있다. 비로소 자기 삶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구름에 가리면 사라질 그 뻗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더욱 짙어지는 그림자를 돌보아야 할 때이다.

〈소설가〉

종교칼럼



김재영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인가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했다. 화가는 무서운 싸움터가 변해서 곡식이 누렇게 익고,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골장 붓을 들고 그렸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실망한 화가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자녀들이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반겨주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에는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다. 그는 잠시 후 식당에 둘러앉아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자녀와 아내의 얼굴에서 사랑과 신뢰와 평화를 발견하고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외쳤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가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바라는 가정의 행복은 작은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고, 이러한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다. 자기 가정을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

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는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내 아내만은, 남편만은, 자식만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31년 동안 지긋지긋한 부부 생활을 이어 왔다는 어떤 분이 그렇게 미워만 보였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외로움 보다는 약체가 낫다”는 말을 했다. 약체도 약체지만 나 홀로라는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가정 파탄의 주범인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원칙을 통해 해결 보았으면 한다. 첫째, 서로 존중해 주라. 상대방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진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고 존경하라.

둘째, 서로를 즐거워하라. 함께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불화의 대부분은 관심사나 취미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서 생긴다. 셋째, 서로 대화하라. 어느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부부간에는

더욱 강조된다. 숨김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라. 가슴으로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넷째, 서로 돕는 자가 되라. 부부관계는 두 사람을 묶어 놓고 달리는 게임이다. 서로 간의 보조가 필요하며 협력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다.

“모두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라는 찬송 가사가 있다. 모두가 일하며 한 상에 둘러앉아야 한 식구 공동체이며 낙원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은 식사시간만이라도 TV시청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족의 식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요즘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웰빙 음식도 좋고, 힐링을 위한 음악도 좋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대화와 화목한 식탁을 위한 가족의 식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칭찬, 위로, 격려, 웃음이 바로 웰빙이고 힐링이 아니겠는가. 어느 위대한 화가의 아름다운 작품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라 여겨진다.

社說

법적 조장하는 허술한 인터넷 보안망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보안망을 넘나들면서 손쉽게 PC를 뚫통시키고, 주민번호까지 해킹하고 있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일명 ‘사이버 조폭’이라 불리는 악성 해커들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무자비하다고 한다. 해커들은 이용자들이 많은 PC방을 물론 웹사이트와 공공기관 전체를 마비시키고, 협박을 통해 돈까지 뜯어내고 있다.

실제로, 10대 고교생이 악성프로그램으로 쯔미 PC 1700대를 만들어 이를 유포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학생을 협박해 쯔미 PC 목록과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16)군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 동영상상을 올리고, 이를 다운받은 쯔미 PC로 감염시키는 등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군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PC방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 컴퓨터 90여대를 마비시켰다.

또, 김군에게 돈을 뜯어낸 박모(22)씨 등 3명은 가입자 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 김군의 주민번호를 알아냈고, 행정전산망에서 김군의 주소까지 파악했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인터넷 보안망을 뚫고 해킹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행정전산망이 뚫리고, 사이버 범죄가 무법천지라는 건 치명적이다.

정부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국내에서만 수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일일이 규제·감독하기란 어렵다는 하소연 뿐이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수습하는 ‘뱃박 행진’이 전부인 셈이다.

당국은 보안이 취약한 PC방이나 공공기관 전산실 등에 대한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속히 마련해 한다. 경찰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예방책 강구와 함께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생선 폐기물을 양식 사료로 사용하다니

생선 내장·머리 등 수산물 처리 폐기물이 양식사료 원료로 둔갑해 양식업자들에게 대량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특히, 쓰레기 사료로 양식된 광어·우럭 등 수산물이 아무런 제재없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여수해경은 27일 여수 오천산단단지에서 발생한 생선 내장·머리 등 수산부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박모(50)씨 등 가공업체 대표 6명과 유통업자 5명(56)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부터 각 업소에서 배출된 ‘쓰레기’인 수산 부산물을 20kg당 4000원을 받고, 100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이 부산물을 11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에게 사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생선 뼈·머리, 내장 등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법 유통시켰고, 양식업자들은 그대로 갈아

이루어 먹어 양식한 뒤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씨 이외에 수산 폐기물을 사들여 공급하는 무허가 수거업자와 사료로 사용한 양식업자들이 더 있다는 데 있다. 또 사료로 사용된 수산부산물의 위생성과 항생제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 이란 ‘쓰레기 사료’ 양식 물고기 식탁에 그대로 올려지고 있어 먹거리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이 수사 확대는 물론 강한 적결 의지를 내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익몰수제·블랙리스트 제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들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우리가 세상의 밑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미루님도 처박혀 있는 게야. 세상이 거꾸로 되었으니 상수하족은 커녕 상족하수(上足下首)가 맞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합쳐 바로 일 으켜 세울 것이 아닌가...자, 이 미루님 만 일으켜 세우 드리면 세상이 바뀐다네.”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의 마지막 부분이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의 명물 ‘부부와불’을 묘사한 내용이다.

산성성이에 드러누워 있는 부부와불의 남영은 12m, 부인은 9m로 머리는 남쪽, 발은 북쪽을 향해 있다. 통상적으로는 머리를 북쪽, 발을 남쪽으로

배치하는데 작가는 엇나간 세상을 와불의 ‘상족하수’에 빗대고 있다. 장길산의 마지막 무대는 운주사다. 조선 중기, 민초들의 세상을 꿈꾸었던 장길산과 반란군은 관군의 추격을 피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1000개의 탑을 세우면 세상을 바꾼다는 전설에 따라 정성을 다하지만

마지막 와불을 세우기 전 때 이른 닭의 울음소리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황석영은 천불천탑을 미루신앙으로 연결해 민중이 꿈꾸는 세계를 담으려고 소설의 대미를 운주사에서 맺었다.

운주사에는 부부와불을 포함해 70개 의 석불이 남아있다. 석불들은 길쭉한 얼굴, 길게 묘사된 코, 좁은 이마 등 투박하지만 각각 다른 표정으로 소박한 멋을 풍기고 있다.

운주사 석불은 평면적으로 조각돼 입체감이 떨어지는데다 이곳 석질의 영향으로 이목구비가 더욱 불분명하다. 운주사 뒤편 천태산의 바위가 단단한 화강암이 아닌 깎깎에 풍화로 인해 마모가 잘 되기 때문이다.

조선대 연구팀이 운주사 석불을 대상으로 저주와 결합 탐지기를 동원해 정밀 진단한 결과 풍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한다. 운주사 석불이 조각가와 자연이 함께 빛은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학적인 표정까지 씻겨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운주사 석불



기고

봄 내음 ‘활짝’...여수 여행 어때요?



박은규 여수시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마을 짙은 처자 꽃 따라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우리가 어릴 적 자주 불렀던 ‘봄이 오면’의 노래 가사다. 이 노래에 절로 가슴 설레는 이맘때, 전국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취산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진달래꽃들이 만들어내는 봄의 절경에 취해보고 산행의 즐거움도 느껴보자. 정상까지는 각 코스별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맞춰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재개장된다.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EDG), 스카이다워 개장을 시작으로 박람회기간 큰 인기를 모았던 빅오쇼도 5월 11일부터 다시 볼 수 있다. 6월 29일부

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해져 수준 높은 빅오쇼를 선보이게 된다. 아시아 최초 360도 돛 수조와 280여종 3만4000㎡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아쿠아플라넷은 가족단위 단체관광객들로 붐비는 등 연일 인기를 더하고 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엑스포장 지하 대형 주차장이 개방되고, 여수박람회장~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구간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곳, 옹동도와 여수해양레일바이크도 빼놓을 수 없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며 동백꽃 근각지로 유명한 옹동도에선 동백열차와 유람선이 운행되며 4월 1일부터 여수거북선호를 타고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에 취해 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전 구간 4.1km가 해변으로 조성된 해양레일바이크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수도권에서 3~4시간, 부산·경남 권에서 2시간대(자가용 기준)면 진입할 수 있는 박람회 성공개최도시 여수는 KTX로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특1·2급 호텔과 11개의 관광호텔, 2개의 콘도를 갖춘 여수의 훌륭한 숙박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시티투어(주간코스, 야간코스)도 운행된

다. 향일암 코스와 역사유적 코스도 운행되는 주간코스에서는 음식특화거리에서 전국 최고 음식 맛을 자랑하는 여수의 10미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야경이 훌륭한 야간 코스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돌산공원, 옹동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 섬 투어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여수 관광의 백미다. 원시자연의 풍광과 바다를 배경으로 약 18.5km를 걸을 수 있는 금오도 비렁길, 100년 된 등대와 영국군 묘지 등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문도 그리고 신비의 섬 사도 탐방은 전국에서도 으뜸 코스로 꼽히고 있다. 특히 사도는 1년에 단 한 번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올해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바닷길이 열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여수의 대표축제인 여수거북선 대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여수시 일원

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과 호국충절을 기리는 내용으로 47년째 이어져 오는 해양호국문화축제로서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그리고 거북선의 고향 여수를 테마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한국코레일과 함께하는 oh yeosu 3색(맛, 멋, 열) 특별관광열차 여행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무박 2일 일정으로 ▲5월 3일 춘천~ 거문도·백도 ▲5월 16일 용산~ 옹동도·향일암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 10월에는 용산~ 옹동도·향일암 코스와 금오도 비렁길 2개의 일정으로 마련해 관광객 맞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창한 봄,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바다. 수만년 동안 자연의 신비를 지켜온 섬의 도시.

세계 4대 미항 여수로, 지금 바로 달려가 보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본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 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